

도서관서 마주한 기억과 회복의 시간

ACC 창·제작 공연 '사사로운 사서'...14-15일 극장1

무대 위 도서관에서 각자의 상처와 기억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 연극 '사사로운 사서'는 익숙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낯선 사건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회복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작·연출 강현주...이지현·손지운 등 참여
서로 다른 가치관 공존의 모습 드러내



지난해 '사사로운 사서' 낭독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4-15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 사업으로 제작된 창·제작 공연 '사사로운 사서'를 무대에 올린다.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은 동시대 아시아 현상을 아시아적 사유로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ACC의 창·제작 사업으로, 지난해 푸코의 계보학에서 착안해 올해 주제를 '사물의 계보'로 정했다.

본 공연에 앞서 주제를 심화하고 극장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보는 시도를 담았다.

지난해 낭독회 형식의 시범공연 후 전문가와 관객 평가를 거쳐 올해 본 공연으로 제작된 '사사로운 사서'는 '도서관'과 '책'이라는 사물의 쓰임과 가치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탐구하는 드라마 연극이다.

작품의 작·연출을 맡은 강현주 씨는 '2023

DAC 아티스트(두산아트센터 선정)'로 활동하며 전작에서 극작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해 올해 '사사로운 사서'를 통해 본인만의 극작 세계를 구축했다.

이 작품은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연극이다. 도서관 장서들이 침수 사태를 겪으며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의 '회복'과 익숙한 공간 속 낯선 상황을 맞은 인물이 개인의 오랜 부채를 마주하는 과정의 '회복'을 그린다.

특히 학교 도서관을 무대에 그대로 구현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도서관 내 침수된 책이 복원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인의 가치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환대받고 공존하는 모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본 공연에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출연한 이지현 배우와 '연젠 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의 손지운 배

우가 각각 도서관 자료실의 실장과 수서팀 팀장으로 분해 연기한다. 이외에도 박용우(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 장호인, 황상경 배우도 도서관 사서와 사회복무요원 역을 맡았다.

'사사로운 사서' 공연은 13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이다. 오는 14일에는 오후 3시와 7시에, 15일에는 오후 2시에 만나볼 수 있으며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전담장은 "'사사로운 사서'는 도시의 거실이라 불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둘러싼 사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면 서 "이밖에 다양한 소재의 ACC 창·제작 공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조형으로 쌓아올린 무등의 풍경

김광덕 개인전, 29일까지 국윤미술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만나는 자리에 돌이 쌓인다. 무등산의 정취를 품은 돌덩이들은 어 느꼈던 사람의 기억과 감정, 바람이 겹겹이 얹힌 탑이 되고 그 자체로 묵직한 이야기를 품는다.

국윤미술관이 오는 29일까지 무등산인문축제 연계 기획전으로 김광덕 작가 개인전 '무등소원(無等所願)'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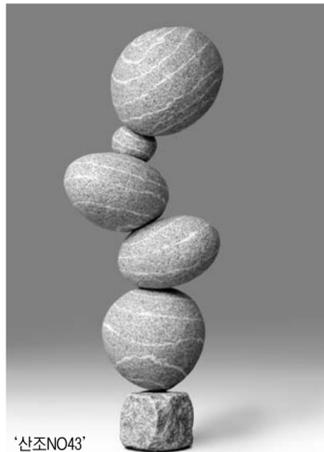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소통'이라는 미술관의 철학을 조형적 언어로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무등산 주상절리 형상을 바탕으로 한 설치작품과 함께 지역의 정신성과 작가의 감

성이 어우러진 신작들이 전시된다.

김광덕 작가는 돌을 쌓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감정과 수행, 균형과 긴장 사이를 탐색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폐기물 등 혼합 재료로 제작된 돌덩이 형상은 공간 속 리듬감 있게 자리 잡는다. 그의 작품은 산조의 자유로운 장단에서 모티브를 얻은 '산조조각'이라는 개념 아래 역동성과 절제의 미감을 동시에 담고 있다.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시장 내 '소원 돌탑 쌓기'와 '소망지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은 자신의 바람을 쌓아 올리고, 개인의 이야기를 전시 일부로 남길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산조NO43'



5·18의 목소리, 광장에서 되살아나다

제109회 광장음악회...7일 금남로 일대

클래식 대중화와 생활화를 목표로 활동해온 '꿈꾸는예술'의 대표 프로그램 '광장음악회'가 109번째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7일 오후 6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연계해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오페라 갈라 콘서트 '무등동동'이다.

'광장음악회'는 공원과 광장 등 일상 속 공간을 클래식 무대로 바꿔온 시민 참여형 야외 공연이다. 유럽에서 수학한 성악가들이 중심이 돼 매달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클래식을 풀어나며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109회차 무대는 김선철 작곡가의 오페라 '무등동동' 갈라 콘서트로 꾸며진다. 김지하·김남주·김준태·문병란 등 5·18을 주제로 시를 써온 시인 11명의 작품을 바탕으로 구성된 대본에 곡을 입혀 광주의 아픔과 기억, 사랑과 저항의 서사를 무대 위에 풀어낸다.

이날 프로그램은 어머니 역을 맡은 소프라노 홍선희의 '겨울소식'(김선철 곡, 조태일 시)으로 시작된다.

이어 소프라노 서혜원(딸)과 테너 김백호

(아들)의 이중창 '새야새야 파랑새야'(김선철 곡), 홍선희와 바리톤 조재경(아버지)의 '우금치 흙'(김선철 곡, 이은봉 시), 네 명의 주역이 함께 부르는 사중창 '황토길'(김선철 곡, 김지하 시)이 무대를 잇는다.

서혜원의 독창 '애 광주여'(김선철 곡, 김준태 시), 홍선희와 김백호의 이중창 '광주여 무등산이여'(김선철 곡, 김준태 시), 세 주역이 함께하는 삼중창 '금남로 사랑'(김선철 곡, 김준태 시)도 이어진다.

소년 역의 최민효는 '어느 구두닦이 소년의 죽음'(김선철 곡, 문병란 시)을 노래하며, 김백호는 아리아 '매장시편'(김선철 곡, 임동학 시)을, 조재경은 '풀씨'(김선철 곡, 조태일 시)를 통해 각각의 서사를 전달한다.

마지막 무대는 네 주역이 함께 부르는 사중창 '광주여 영원하라'(김선철 곡, 문병란 시)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으로 장식된다.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지낸 홍인화가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해 공연 사이사이 5·18의 기억을 함께 나눈다.

공연은 당일 오후 5시 리허설을 진행한 뒤, 6시부터 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남도국악원, 2025 하계 국악교육 직무연수 모집

16-20일, 유·초·중·특수학교 교직원 대상

국립남도국악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교원 및 교원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국악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5 하계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간 전남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연수는 국악 교육의 실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국악이론·장구 반주법·사물놀이 등 공통과목과 함께 지역별 민요, 판소리 수업이 마련된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배우는 '강강술래', 선택과목



인 단소·소금 수업도 포함돼 교실 수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장악과(061-540-40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동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